

“꿈나무 발굴·육성 집중...육상 저변 확대 이끌 것”

“유소년 선수층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집중해 광주 육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주육상연맹 사무실에서 만난 김민주 제4대 광주육상연맹 회장(광명주상사 대표)은 “육상은 모든 스포츠의 근간인 기초 종목이지만, 동시에 비인기 종목이다. 선수를 육성하려다 타 종목으로 떠나는 선수들이 많다. 학교 체육에서부터 서서히 말라가다 보니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육성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빛내는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제일고와 목포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육상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그런 그가 이 종목에 몸담게 된 건 체육계에 있는 지인들 때문이다.

김 회장은 유석우 전 광주핸드볼협회장(현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박세준 전 광주스키시연맹 회장(현 대한스키시연맹 회장)과 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다. 이들이 종목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 또한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그날기에 관심이 있었다.

회장직 출마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인들이 종목단체장을 맡는 이유였다. 사업체를 가진 그들은 회사 운영과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기회라고 말했다. 선수들이 성장하고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과 활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더욱이 열악한 종목의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지역 체육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유두 2단의 실력자이자, 수십 년간 사회인 야구를 즐겨온 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결국 그는 제4대 광주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등록하게 됐다. 이후 2025년 4월 17일 실시한 선거에서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 뒤 적격하다고 판단, 김 회장을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김 회장은 당선 후 “광주육상은 지역 체육의 자부심이었고, 지도자와 선수들의 헌신과 믿음이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광주 육상의 선수층 확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다. 또한 화합과 소통, 혁신으로 모두가 신뢰하는 연맹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함께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취임 이후 그는 남다른 열정으로 광주 육상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먼저 광주 소속 선수단의 부상 방지 및 재활 등 전문 의료 서비스 체계화를 위해 수안병원과 업무

체육가맹단체를 찾아서 김민주 광주육상연맹 회장

의료기관 협약·발전기금 마련 등 지원기반 구축 초·중·고 활성화 과제...인재 유출 방지 등 역점 회장배 마라톤 대회 추진...종목 대중화에 총력

협약을 체결했다. 또 구구치과와 손을 맞잡아 4년간 총 1200만원 규모의 안정적인 후원을 확보했다. 특히 재정지원이 열악한 종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썼다. 육상 선수들은 매년 훈련과 대회 출전에 들어가는 교통비, 숙식 등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임원들과 함께 심시일반 모금, 소년·전국체전 등 다양한 대회에서 선수들이 훈련과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금을 조성했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활동 편의를 높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선수에게는 격려금을, 우수 선수들에게는 포상금 또한 지원했다.

여기에 매년 광주지역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부분의 대회에 동행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선수들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응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것

이러한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 육상 선수단은 전국(소년)체전과 국제대회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전국체전에서는 광주시청팀이 일반부 남자 1600m 계주에서 금메달, 광주체고가 고등부 남자 16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일반부와 고등부가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광주=계주’ 공식을 고등부까지 확장시켰다. 또 조선대는 여자 일반부 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활약했다.

소년체전에서는 광주체중이 멀리뛰기 은메달, 세단뛰기 동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의 자존심을 지켰다.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역시 화려하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이재성(광주시청)이 남자 400m 계주에서 38초4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욱이 ‘2025 라인-루르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이재성이 서민준(서천군청)·나마다 조원진(여천군청)·김정운(한국체대)과 팀을 이뤄 출전한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38초50을 기록, 38초80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육상이 U대회 남자 400m 계주를 포함한 릴레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건, 32회를 맞은



김민주 광주육상연맹 회장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이처럼 김 회장은 육상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건 학교 체육의 활성화다.

광주에는 초(3곳)-중(1곳)-고(1곳)-대학교(1곳)-실업팀(1곳)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양성 루트가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수들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육상은 모든 운동

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다. 그렇다 보니 육상을 잘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른 인기 종목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려워진다. 광주는 특히 열악하다. 전국적으로도 중학교팀이 한 곳인 곳은 세종시와 광주뿐이다.

김 회장은 “어린 선수들이 달리기를 잘하면 대부분 축구나 야구 등으로 옮겨가게 된다. 육상 종목의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진다”면서 “특히 육상 안에는 많은 종목이 있다. 그러나 선수가 없다 보니 높이뛰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계주에 뛰게 되는 등 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육상 학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지도자 및 학생들을 직접 격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으며 문제점을 개선해나간다는 의지다.

김 회장은 훈련장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광주 육상 선수들은 월드컵 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광주FC가 월드컵 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옮겼다”면서 “그렇다 보니 훈련은 물론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물 관리주체인 광주시체육회와 축구협회, 광주FC 등 협의해야 할 투트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광주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서브 트랙이 있어야 하지만, 보조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역시 추진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러닝 붐에서 착안, 마라톤 대회를 열어 광주 육상을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임기 내 광주시육상회장배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볼 생각이다. 전문적인 마라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을 생각 중이다”면서 “광주육상연맹에서 선수들이 직접 참여하는 달리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접목해서 광주 육상을 알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육상은 올림픽의 상징과도 같은 종목이다. 기초 종목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인기 종목의 한계에 부딪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임기 내 육상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 시민분들도 육상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꾸준히 발전하는 광주육상연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회장과 제106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조 선대학교 육상팀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강다슬 선수와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회장.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청 육상팀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체고, 전국종별복싱대회 남녀 종합우승·준우승

대한협회장배 단체전서 메달 휩쓸어...스포츠클럽 유망주들 활약

전남체고 복싱부가 ‘2026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 여자고등부 단체전을 제패했다. 전남체고는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고등부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65kg급 황보주(2년)와 -51kg급 이에린(3년)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57kg급 안아오(3년), -60kg급 이정원(1년), -51kg급 최유나(2년) 역시 각각 동메달을 추가하면서 팀 종합우승에 힘을 보탤었다.

전남체고는 남자고등부에서도 활약을 이어

갔다. -48kg급 김태서(2년), -50kg급 정광진(3년)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전남체고는 남고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중등부에서는 스포츠클럽 소속 유망주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보성복싱마스터스포츠클럽 소속 박주현(보성중 3년)은 -52kg급에서 16강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2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도완(보성중 3년)은 -66kg급 8강에서 지난해 전국대회 입상자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따냈다. 또 김한빈(전남체중 3년)은 -57kg급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남 복싱의 자력을 뽐냈다.

주동현 전남도복싱협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선수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전남 복싱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복싱 유망주들의 뛰어난 기량과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선수와 스포츠클럽 유망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6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종별복싱대회’에서 입상한 전남 복싱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원, 안아오, 최유나, 이에린, 정광진, 김태서, 황보주, 김한빈, 김도완, 박주현.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 김홍규 신임 감독 선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 실업팀이 김홍규(58) 신임 감독 체제를 맞이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광주시청 문화체육실장실에서 광주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신임 감독 임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된 김홍규 감독은 장애인양궁 국가대표(2001~2014년),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사무국장(2007~2015년), 광주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플레잉코치(2013~2015년) 등으로 활동한 대한민국 장애인양궁 1세대 선수 출신이다. 지난 ‘2007 청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리커브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특히 2004년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 실업팀 선수였던 김관숙 선수(현 한전KPS)를 발굴해 훈련시키며,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패럴



김홍규 광주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감독은 “광주 장애인양궁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교감을 나누고 함께 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퓨처스 리그 홈 개막전서 열기 끌어올린다

25일 구단 첫 퓨처스 개막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오는 25일 수요일 오후 1시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퓨처스 리그 홈 개막전을 맞아 ‘다시 뜨겁게-BEGIN AGAIN’의 타이틀을 걸고 이벤트를 개최한다.

경기 중에는 서한구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4명이 팬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친다. 팬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미니 포토부스와 즉석 플라로이드 퓨처스 리그 홈 개막 이벤트로, 정규 시즌 개막

전부터 야구 열기를 끌어올려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챌린저스 필드에 호걸이 에어블루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운영되며, 챌린저스 필드를 찾는 팬들에게 퓨처스 선수단 친필 사인이 들어간 스페셜 티셔츠와 페이스 스틱스를 웰컴키트 형태로 제공한다.

경기 중에는 서한구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4명이 팬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친다. 팬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미니 포토부스와 즉석 플라로이드

이벤트도 마련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